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덤불 속(藪の中)』에 나타난 부조리성 연구

강혜선*

〈차 례〉

1. 머리말
2. 부조리문학과 『덤불 속(藪の中)』에 나타나는 특수성
3. 『덤불 속』에 나타난 거짓 증언과 부조리 구조
4. 결론

【국문초록】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덤불 속(藪の中)』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명예와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진술자들의 증언은 거짓이며 중요한 부분에 있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이 작품은 의사소통의 불가능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불신과 허위라는 측면에서 부조리의 단면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거짓말은 '악(惡)'과 '미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살인 사건은 인간 존재의 야수성을 담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짓말 속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야수성이나 물질성, 비생명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충남대학교 강사

이것은 서양의 '조리-부조리'의 개념과는 다른 일본 고유의 가치체계가 『덤불 속』의 갈등구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거짓말은 일본 고유 가치체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지극하게 마코토를 지키려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진실'의 어원이 동서양 공히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실은 그들의 '허위'가 거짓과 부조리가 아니라, '명예'를 위한 '진실'된 행위라는 측면으로 일본 전통 가치체계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거짓과 진실이 통일되고 다시 진실이 사실과 괴리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불합리성이자 부조리이다. 하지만 '진실'이 허위와 거짓의 반대 개념보다 주체의 '성실'과 '참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일본 고유의 정서와 가치 속에서는 그들의 거짓말은 '허위'라는 측면보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됨'의 행위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부조리는 조리와 선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주제어: 부조리, 마코토, 진실, 『덤불 속』,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까뮈

1. 머리말

자연주의 문학과 그 흐름을 이은 '私小說'의 방법을 거부하고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한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는 다이쇼기(大正期)의 시대정신과 의식을 고전적 풀이의 방법인 역사소설의 형태로 풀어내면서 자신의 문학 세계를 구축했다. 이로 인하여 아쿠타가와는 메이지기(明治期)와 다이쇼기의 문학시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의 대표적 단편 중 하나인 『덤불 속(藪の中)』은 상상과 픽션의 요소를 빼고는 소설의 형식과 양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파격적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작가 아쿠타가와가 소설의 형식을 취하지 않음으로 더 큰 사실적 효과를 주려한 그 의도에 이끌려, 독자는 소설이 아닌 흡사 기자의 취재수첩이나 경찰의 수사노트를 몰래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소설은 어느 덤불 속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사법관이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는데, 사건과 관련 있는 진술자들의 주장은 모두 상이하며, 다시 모든 진술은 진술한 당사자의 이익과 입장에 서서 다분히 주관적 진술로 진행되고 있다. 이 주관적 진술은 진술자 자신의 명예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을 감추고 있거나 왜곡하는 자기 합리화의 변명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이 흐름 속에서 인간의 부조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진실성과 관련된 인간 신뢰의 문제이다. 이 인간 신뢰와 진실성의 문제는 에고이즘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진실을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는 인간의 행위는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다. 곧 인간의 진실성 문제는 에고이즘의 문제가 되며, 이 에고이즘은 인간 부조리의 원인이면서 본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시각은 『덤불 속』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에비이 에이지(海老井英次)는 『덤불 속』을 "7개의 서로 상반된 진술에 의해 형성된 작품의 구성에 주목하여, 그들 진술의 어긋남을 중심으로 '인생의 복잡함, 불가해, 부조리성'을 주제"[1]로 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한 와다 시게지로(和田繁二郎)도 이 소설은 "각각의 해석-진술을 종합함으로, 거기에 사건의 진상을 생각해내려고 쓰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기에 하나의 진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적인 공포와 닮은 '회의' 그 자체를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2]이라고 말한다. 다시 에비이 에이지는 와다 시게지로의 해석을 근거로 『덤불 속』을 "인생의 부조리성(人生の不條理性)"[3]이라는 주제로 보는 것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외 무로 사이세이(室生犀星)는 "악의 미를, 진실의 본체를, 비교적 그렇게 있을 법한 형상을 다루는 인생을 - 이 한편으로 성욕적으로 타협함 없이 펼쳐낸 것"[4]이라는 악마주의적 관점에서도 『덤불 속』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시각은 아쿠타가와의 작품이 서양의 부조리 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상응하여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부조리 이론을 정리한 마틴 에슬린(Martin Essline)은 인간 존재의 부조리성, 내면적 진실의 포착 등을 목표로 연극 형식의 파괴, 일상적 논리성의 폐기, 줄거리의 부재 등을 특징으로 설명하는데, 이러한 부조리 이론을 고려할 때 보편적 소설의 형식을 깨뜨린 채 수사노트처럼 전개되는 『덤불 속』은 부조리 문학에 전형적으로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덤불 속』을 부조리 이론의 작품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부조리 문학의 대표작 까뮈

1) 海老井英次, 「『藪の中』主題考—『藪の中』論(三)」 『北九州大学文学部紀要』 第16号, 北九州大学文学部, 1976, p. 42. [이하 번역은 필자]
…七つの陳述によって形成されている、この作品の構成に注目し、それら陳述「齟齬・矛盾」という点を中心にして、「人生の複雑さ・不可解さ・不條理性」を主題をみるものである。

2) 和田繁二郎, 『芥川龍之介』, 創元社, 1956, p. 112.
それぞれの解釈—陳述を総合することによって、そこに事件の真相を考え出させようとして書かれたものではない。むしろ、そこに一つの真実をも発見できないという、絶望的な恐怖に似た、懐疑そのものを強いようとするものである。

3) 海老井英次, 앞의 논문, p. 42.

4) 室生犀星, 『芥川龍之介の人と作 上』 現代叢書40, 三笠書房, 1943, p. 52.
悪の美を、眞實の本體を、比較的にさうあるべ形相を奏でる人生を、—この一篇によつて性慾的に妥協することなく踏へたものである。

(A,Camus)의 소설 『이방인(L`Etranger)』에 등장하는 뫼르소(Meursault)는 단지 여름 태양이 강렬하게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데, 아쿠타가와의 『덤불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는 그 누구도 뫼르소처럼 존재의 무의미성과 무목적성을 보이는 인물상은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마코토(誠)'의 인간형으로 풀어볼 수 있다. 하다못해 도둑 다조마루(多襄丸)까지도 자신이 비록 살인과 약탈을 범하는 악당이었지만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악행은 저지른 적이 없다는 듯한 꽤나 오연한 결의를 가진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등장인물의 인간형에 대한 상이함을 이해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이것이다. 즉, '아쿠타가와 류노스케가 제기한 인간의 허위와 에고이즘은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인가' 이다. 이것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미묘한 문제일 수 있지만, 아쿠타가와가 그의 작품 속에서 인생의 부조리함을 어떻게 녹여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열쇠로도 이해될 수 있다.

겐유 소큐(玄侑宗久)는 "『덤불 속』에서 얘기하는 사실 인식이 사람에 따라 그만큼 다른 것도,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생활사에서 오는 신조와 사는 방식의 차이, 그로 인한 '결심'의 차이 탓"[5]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덤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명예와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쿠타가와는 이들을 거짓과 위선에 가득찬 인물로 부정적인 묘사를 하기보다, 상황적으로 이해 가능하며 연민이 느껴지는, 혹은 매우 호기로운 인물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서양 부조리

5) 玄侑宗久, 「恥なき藪の中へ」, 文藝春秋, 『文學界』, 63-7, 2009, p. 180.
『藪の中』で語られる事実認識が人によってあれほど違うのも、基本的にはそれぞれの生活史から来る信条や生き方の違い、～それによる「思い込み」の違いのせい

문학과는 다르게, 아쿠타가와가 제기한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과 대답이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부조리에 대한 아쿠타가와의 인식 속에는 서양문학의 부조리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

2. 부조리문학과 『덤불 속』에 나타나는 특수성

부조리(absurd)는 조리에 맞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합리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의 불가능함, 인간 의지의 무력함, 인간의 근본적인 야수성, 물질성, 비생명성 등으로 부조리 개념을 규정한다. 『덤불 속』은 이와 같은 부조리 이론 중 조리에 맞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의사소통의 불가능성,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불신과 허위라는 측면에서 부조리의 단면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조리 문학 또는 부조리 연극은 2차 세계대전의 살육과 파괴 속에서 알베르 까뮈에 의해 처음 제기된다. 이후 원자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무기의 출현과 동·서 간의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한 인류 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난 지성의 반성적 형태로 더욱 확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파멸의 위협은 근대 이성과 과학주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에 대한 반성과 근원적 물음의 성격을 가진다. 이것은 근대인이 구축한 합리적 세계의 전반에 대한 반문으로 비합리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속에서 부조리(absurdity)는 인간의 삶과 그 존재 기반인 사회 속에 나타나는 '비합리(unreasonableness)'를 의미하며 나아가 '비합리'의 극단적인 의미인 '불합리(irrationality, 즉 absurdity)'를 지칭한다.

부조리가 일반인의 이성이나 상식과 대립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용어 속에는 이중적인 요소들이 내재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행동이나 상황이 부조리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부분 다수의 논리를 벗어난 비논리적이며 비정상적인 것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마틴 에슬린(Martin Esslin)에 따르면 '부조리(absurd)'의 의미는 음악 용어처럼 '조화를 잃은(out of harmony)'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전에는 '어울리지 않는(incongruous)', '비합리적인(unreasonable)', '비논리적인(illogical)'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보통 '우스꽝스러운(ridiculous)'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실제로 불어에 있어 '부조리하다(C'est absurde)'는 표현은 우스꽝스럽고(incongru), 기괴하며(grotesque), 말도 안 되는(nonsensizue) 등의 용어와 큰 차이 없이 쓰이고는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부조리가 단지 질서를 벗어난 바로크적인 기괴함과 동일시된다면 위의 여타 용어들과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비정상적인 데서 오는 코믹함과 기괴함을 지칭하는 데에 그칠 것이다. 실제 까뮈는 그런 뜻으로 '부조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논리적인 차원에서 논리를 벗어난 것으로 여겨지는 부조리가 단순히 우스꽝스럽고 기괴한 것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웃기 이전에 그 기괴함의 원인, 곧 부조리가 지닌 불가해성에 대한 원인을 자문하여야 한다. 또한 부조리는 일종의 삶에 대한 비극적 '감정' 내지는 '감수성'을 통해 체감된다. 부조리의 정의가 지닌 희극성과 비극성은 여기서 해명된다. 부조리가 단지 논리적인 차원만이 아닌 존재론적 차원에서 제기될 때 이는 인간 실존에 대한 비극적 감정과 더불어 우리에게 일종의 '불편함' 내지는 '불쾌감'을 선사한다. 쟝 에멜리나(J.Emélina)는 논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본질적으로 언어적인, 때론 폭력적이며 익살맞은 부조리를, 자동적으로 체험된 숙명적으로 고통스러운, 보다 깊이 있는 부조리와 대립시킨다. 후자는 '실존적 불편함'에 기인한다는 것이다.[6]

6) 김세리, 「미적 경험으로서의 '부조리'」, 『미학 · 예술학 연구』 Vol. 22, 한국미학예술학회, 2005, p. 309.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덤불 속(藪の中)』은 그것이 상상이나 픽션이라는 점을 제외한다면, 소설이 갖추어야 할 형식이나 양식을 전혀 갖추지 않은 파격적 작품이다. 소설이라기보다 정리되지 않은 기자의 취재수첩이나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의 수사노트를 약간의 정리만을 통하여 옮겨놓은 듯하다. 실제 이 작품은 어느 덤불 속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해 사법관이 수사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수사관이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사건과 관련 있는 진술자들의 주장은 모두 상이하며, 다시 모든 진술은 진술자 자신의 이익과 입장에 입각하여 주관적 진술로 진행되고 있다. 진술자들의 증언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아쿠타가와는 독자들이 각각의 진술의 상충을 통하여 진술자 모두가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든다. 이 주관적 진술은 진술자 자신의 명예나 이익과 관련하여 진실을 부분적으로 감추고 있거나 왜곡하고 또는 자기 합리화의 변명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코 진실은 밝혀질 수 없고 실제 아쿠타가와조차 진실을 밝히는데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이렇게 소설의 형식에 대한 파격과 등장인물인 진술자 모두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짓 증언, 도무지 신뢰할 수 없고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제목처럼 덤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혼란과 당혹함만을 느끼게 만든다. 까뮈가 말하는 부조리의 전형성이 작품 『덤불 속』에 나타난다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설의 형식을 파괴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노트와 같은 형식의 빌려온 듯한 『덤불 속』은 그 구조의 탈형식적인 면까지도 부조리 이론의 교과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쿠타가와 『덤불 속』의 등장인물들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까뮈의 뫼르소와 달리 삶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강한 긍정과 의미를 놓지 않고 있다.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모두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인자이다'는 긍정의 자백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록 그들이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이 거짓으로 인한 불신은 '악(惡)'과 '미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살인 사건은 인간 존재의 야수성을 담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짓말 속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야수성이나 물질성, 비생명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대 사회의 윤리에서 '진실'은 '선'으로 이어지며 '거짓'은 '악'으로 연결된다. 또한 '선'은 '좋음'으로 '악'은 '미움'으로 인간의 마음에 반영된다. 하지만 『덤불 속』에서는 '거짓'이 '악'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미움'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진실'이 무의미해지며 힘을 잃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덤불 속』은 합리적 진실이 그 힘을 잃는다는 측면에서 기존 개념과 다른 또 다른 부조리로 이해 될 수 있다. 부조리가 주는 '불편함' 내지는 '불쾌감'이 아쿠타가와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위에서 말한 쟝 에멜리나의 '실존적 불편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확실히 까뮈식의 부조리와 다른 독특한 자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덤불 속』은 부조리 이론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도저히 부조리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다. 필자는 이것을 서양의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체계와 다른 독특한 정서가 『덤불 속』의 내용 전반에 내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합리와 부조리의 개념으로는 밝혀낼 수 없는 독특한 가치체계가 제시되고 있다고 본다.

3. 『덤불 속』에 나타난 거짓 증언과 부조리 구조

합리와 비합리, 조리와 부조리,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선과 악이라는 서구 근대의 기준 체계는 아쿠타가와 작품 속에서 커다란 힘

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의 작품 『덤불 속』에는 '진실'과 '거짓'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하는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닌, 심정적이고 상당부분 미학적인 일본 고유의 가치체계가 기초로 자리잡고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덤불 속』은 1922년 발표된 단편 작품으로 『라쇼몽』과 마찬가지로 고전에서 모티브를 얻어 써낸 왕조물(王朝物)로 야마시나(山科) 역로의 인근 산 잡목 숲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대하여 게비이시(檢非違使)[7]의 수사내용을 용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을 스토리텔링의 방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덤불 속』의 기원이 된 이야기는, 『곤자쿠모노가타리(今昔物語集)』 제29권 本朝付悪行에 있는 "具妻行丹波國男、於大江山被縛語第二十三"[8]라는 짧은 이야기로서 아쿠타가와가 『덤불 속』을 쓰는데 있어서 모티브로 삼은 것은, 수도에 사는 남자가 아내를 데리고 단바노쿠니(丹波国)로 나섰을 때 오에야마(大江山) 근처에서 만난 젊은이들에게 속아서 아내를 욕보였고, 결국 활과 말을 빼앗긴다는 정도의 것이었다. 아쿠타가와는 이 이야기를 근대 소설의 작법에 맞춰 재구성하여, 살인 사건으로 다시 만들어서, 목격자와 당사자의 증언이 각각의 입장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정말로 복잡하고도 이상한 이야기로 만들어 낸 것이다.

소설『덤불 속』의 이야기는 나무꾼이 산에서 살해된 무사 다케히로(武弘)의 시체를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나무꾼의 상황설명 이후에는 살해되기 직전의 무사 부부를 봤다는 승려의 증언과 그리고 '범인을 꼭 잡아달라'는 무사 아내의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고, 드디어 범인인 도적 다조마루(多襄丸)의 증언이 시작된다. 다조마루는 자신이 무사를 죽였으며 그 이유는 아름다운 무사의 아내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서였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무사를

7) 檢非違使 : 헤이안(平安) 시대에 경찰과 재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직책 (필자주)

8) 日本古典文学大系『今昔物語集』五巻, 岩波書店, 1963, p. 175.

죽인 것은 정당한 결투를 통해서였으며 그것은 자신이 무사의 아내를 범한 이후 무사의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정당하게 그녀를 차지하고자 결투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를 이은 무사의 아내 마사고(眞砂)의 진술은 그것과 달랐다. 마사고는 자신이 무사를 죽였다고 주장하며 죽인 이유는 자신이 겁탈 당한 후 자신을 더러운 여자인양 멸시하는 남편을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마사고의 뒤를 이어 무당의 입을 빌어 진술하는 무사의 사령(死靈)은 위 두 사람의 진술과는 달리 자신의 죽음은 자신의 자결로 끝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내가 겁탈당한 후 다조마루의 유혹에 솔깃해져 그를 따라나선 아내가 결국 자신을 죽여달라고 소리쳤고, 그러한 아내의 배신과 굴욕에 결국 자결했다고 말한다.

나무꾼과 승려 그리고 무사 아내인 마사고 어머니의 진술을 제외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나무꾼과 승려, 무사아내의 노모의 진술은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든 논리 정연하여 독자로 하여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하지만 '살인자가 누구이며 무사는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질문은 추리소설의 장르가 아닌 이 작품에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누가 살인자인가?'라는 질문은 필요없는 사족일 뿐더러 아쿠타가와의 작품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위에 불과하다. "우리들이 (누가 살인자인가 라는 : 필자) 진실을 추적한다면 그것은 마침내 헛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다. 진실은 작가도 모른다. 처음부터 그것은 상정되어 있지 않았다"[9]고 말하는 고마샤쿠 키미(駒尺喜美)의 주장이나 "『덤불 속』에는 원화가 없다. (중략) 따라서『덤불 속』의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지는 작업, 즉 세 사람의 모놀로그에서의 일치점을 모으기도 하고, 모순되는 부분을 없애기도 해서 세 사람이 실제로 전개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헛수고이다.[10]"라는 에비이 에이지의 주장은 그것을 뒷받침한다.

9) 駒尺喜美, 「芥川龍之介『藪の中』」, 『国文学 解釈と鑑賞』 34巻4号, 至文堂, 1969, p. 80.
私たちが真実を追跡するならば、それは遂に徒労に終わらざるを得ない。真実は作者にも分らない。始めからそれは想定されていないからである。

10) 海老井英次, 「『藪の中』の原典と作家の主体」—『藪の中』論(一)」『北九州大学文学部紀要』第10号, 北九州大学文学部, 1974, p. 31.
「藪の中」は原画がないのである。(中略) したがって、「藪の中」の真相究明とか称して行われる作業、すなわち三人のモノローグの一致点を集めたり、矛盾する部分を削除したりして、三人が現実にくり広げたであろう事実を確定しようとしたりするのは、もとより徒労なのである。

11) 텍스트 芥川龍之介, 「藪の中」『芥川龍之介全集』第5巻, 岩波書店, 1977, p. 109.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인사건의 당사자들 모두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이다. 그것도 서로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작품 속 살인 용의자인 3명 모두가 자신이 '살인자'라고 자처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매우 유력한 살인 용의자 다조마루의 증언을 들어보자.

> 저는 여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비록 벼락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로 삼고 싶다, — 제 머리 속에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천한 색욕이 아니었습니다. …… (중략) …… 그러나 남자를 죽이는데도 비겁한 방법으로는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내의 밧줄을 풀어주고 칼로 맞서라고 했습니다. …… (중략) …… 제 칼은 23합(合)째에 상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23합째에—부디 그것을 잊지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그것만큼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칼을 그 정도로 맞댄 자는 천하에 그 사내 하나뿐이었으니까요.[11]

다조마루의 진술 속에는 자기합리화는 있을지라도 비겁함은 없

다. 다조마루가 설사 이 사건에서 살인죄를 면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도 자신은 어차피 사형될 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 자포자기한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그런 태도는 일반적인 범죄자의 태도와 확연히 다른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명예를 지키며 '떳떳하게 죽고 싶다'는 식의 오연함이 느껴진다. 마치 자신을 도둑이 아닌 무사로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다. 만약 아쿠타가와가 '인간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면 다조마루를 꿋꿋한 인간상으로 묘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다조마루의 인간상은 독자로 하여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들고 있다. 무사의 아내인 마사고의 진술을 살펴봐도 위와 같은 인상은 반복된다. 물론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자기합리화에 빠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죽은 무사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이것은 명확하게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비록 아쿠타가와가 인간의 자기 합리화와 그 근저가 되는 에고이즘에 대하여 꼬집으며 그러한 불합리를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간본성에 대한 철저한 불신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나카무라 미쓰오(中村光夫)의 주장에서도 잘 나타난다. 나카무라 미쓰오는 작품 『덤불 속』의 다조마루의 진술에 대한 아쿠타가와의 서술이 독자로 하여금 상당 부분 다조마루를 미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동시에 그는 다조마루의 성격을 발전시켜, 하나의 매력있는 신사 도둑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기분 탓인지 이 기사같은 도둑은 서양의 냄새가 납니다. 아쿠타가와가 愛讀한 메리메의 「카르멘」에 등장하는 돈호세 등이 연상됩니다.[12]

12) 中村光夫, 「『藪の中』から」『芥川龍之介Ⅱ』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 有精堂, 1977, p. 50.
同時に彼は多襄丸の性格を発展させ、一個の魅力ある紳士泥棒をつくりだしていますが、気のせいか、この騎士的盗賊は、西洋の臭いがします。芥川の愛読したメリメの「カルメン」に登場するドン・ホセなどが連想されます。

사실 다조마루는 작품 속 살인사건의 원인제공자이며 줄거리를 이끌고 가는 주동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유명한 도적이자 여색을 밝혀 남의 아내를 강제로 범하는 파렴치범이기도 하다. 이런 전제들은 그를 충분히 '전형적 악인'으로 인상 지워 독자들의 미움을 받아야 함에도 아쿠타가와는 기술적이고 의도적으로 독자들의 미움으로부터 다조마루를 지켜내고 있다. 나카무라 미쓰오의 지적대로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비굴하지 않게 자신이 살인을 했음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호탕한 무사의 풍모까지 느끼게 한다.

뿐만 아니라 나카무라 미쓰오는 무사의 아내를 겁탈한 부분에 대해서도 겁탈 당시에는 정욕에 사로잡혀 범한 일이지만, 이후에는 진정 그녀를 사랑하게 되어 그녀를 위해 살인을 했다고 진술하는 다조마루의 모습에서 서구의 기사도까지 느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이 진술의 특색은 다조마루의 직업이 도둑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이 자부하듯이 여기서는 거의 완전히 신사 혹은 기사로서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그는 처음에는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진실된 사랑을 느낀 순간부터 그는 말하자면 자신의 본성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천한 색욕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서양의 기사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 정신으로 남자의 포박을 풀고 그와 결투합니다.[13]

13) 같은 책, p. 49.
この陳述の特色は、多襄丸が職業こそ盗賊であっても、彼自身自負するように、ここではほとんど完全に紳士、あるいは騎士として振舞っていることです/たしかに彼は最初は強盗でした。しかし、女に真実の恋を感じた瞬間か

이와 같이 아쿠타가와는 작품의 주동인물이자 전형적인 악인에 대하여 이면적인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 신뢰의 문제에 대한 아쿠타가와의 시각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다조마루와 같은 '전형적 악인'에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 하는 '꿋꿋한 멋은 있다'는 식의 아쿠타가와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한다.

1) '거짓-명예'의 통일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성격

다조마루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고자 하였던 '명예'는 전통 일본의 가치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명예'를 중시하는 전통은 서양문화에서도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전통 가치관에서의 '명예' 개념은 이것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중요하고 다른 의미를 가진다.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는 일본인들에게 "오늘날 영어권에서 'honour'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명예'라는 낱말은 (중략)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부분, 이것을 빼면 인간은 짐승이나 마찬가지'라고 여겨졌다"[14]고 말한다. 이와 같은 고결함이 더럽혀지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 '수치를 아는 마음(염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소년의 교육에서 맨 첫 번째 덕목이었으며 "웃음거리가 되게 해주지!" "체면을 깎아주마" "부끄럽지도 않느냐" 따위의 말은 소년에게 올바른 행동을 촉구할 때 하는 최후의 훈계였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의 태속에 있는 동안 그 마음이 마치 명예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소년의 마음 속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였다.[15]

전통의 일본인들에게 '명예'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이자 개념이다. 이와 같은 일본 고유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다조마루의 목숨을 건 오연한 결기를 이해할 수 있다. 명예를 목숨과도 바꿀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본의 전통 가치는 다조마루 뿐만 아니라 무사의 아내와 죽음을 당한 무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작품 속에서 무사의 아내 마사고(眞砂)는 다조마루에 비해 살인자의 누명을 피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자신이 남편인 무사를 살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폭행의 피해자이자 죽은 무사와 부부관계임을 이용해 설사 자신이 남편을 죽였다 할지라도 다조마루가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여도 당시 정황을 보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조와 관련된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자신이 살인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나 남편의 눈빛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차가운, 업신여김의 밑바닥에 미움의 빛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슬픔, 노여움 — 그때의 제 마음은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저는 비틀비틀 일어서서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ら、彼はいわば自分の本性にたちけえります。「これはあなた方の思ふやうに、鬼しい色慾ではありません」と彼は、西洋の騎士のようなことを云います。そして実際、騎士的精神をもって、男の縛めをとき、彼と決闘します。

14) 新渡戸稲造 著, 奈良本辰也 訳・解説『武士道 : 現代語で読む最高の名著』三笠書房, p. 80. (初出 *Bushido: The Soul of Japan*, 1900)
今日のhonourの訳語とされている名誉という言葉は (中略) '人をたらしめている部分、そしてそれを差し引くと残るのは獣性しかない」という考えはごく当然のことと思われる。

15) 같은 책, pp. 80-81.
「廉恥心」という感性を大切にすることは、彼らの幼少のことの教育においても、まずはじめに行われたことであった。「日とに笑われるぞ」「体面を汚すなよ」「恥ずかしくはないのか」などという言葉は過ちをおかした少年の振舞いを正す最後の切礼であった。子が母の胎内にいる間に、その心があたかも名誉によってはぐくまれたかのように、この名誉に訴えるやり方は子供の心の琴線にふれたのである。

"여보,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저는 단숨에 죽을 각오예요. 그러나, —그러나 당신도 죽어주세요. 당신은 저의 치욕을 보셨습니다. 저는 이대로 당신 혼자 뒤에 남겨둘 수 없어요."

(중략)

"그럼 목숨을 저에게 주세요. 저도 바로 뒤따르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저를 멸시하는 듯한 어조로 "죽여라"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옥색 스이칸의 가슴을 향해 쿡 단도를 찔렀습니다.16)

무사의 아내 마사고(眞砂)의 진술은 자신이 겁탈 당한 후 자신을 더러운 여자인양 멸시하는 남편에게 수치심을 느끼고 남편을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치'는 '명예'와 동류항을 이루는 상대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무사의 아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곧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명예'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는 일본인들에게 '수치'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훌륭한 사람은 모욕에 대해서도 그가 받은 은혜만큼이나 강하게 느낀다. 어느 쪽도 그것에 보답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훌륭한 행위이다. 그들은 서구인처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한쪽은 침해 행위, 다른 한쪽은 비침해 행위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행위가 침해로 인정되는 것은, 오직 그것이 '기리의 세계' 밖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다. 사람이 기리를 지키고 오명을 씻는 한, 결코 침해의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빚을 갚아 셈을 치르는 것일 뿐이다. 일본인은 모욕이나 비방이나 패배가 보복되거나 제거되지 않는 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말한다. 훌륭한 사람은 세상을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려놓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보복은 인간의 덕행이지, 인간의 본질적인 약점에 기초한 피할 수 없는 악덕이 아니다.17)

16) 텍스트, pp. 110-112.

17) ルス・ベネディクト, 長谷川松治 訳, 『菊と刀—日本文化の型』, 社会思想社, 1967, p. 169.
有徳の人は、彼が受けた恩恵のみならず、侮辱についても同様に強く感じる。どちらもそれに報いることが道徳的に立派な行ないである。彼はわれわれのように両者を区別して、一方を侵害行為、もう一方は非侵害行為とは呼ばない。彼の目から見れば、ある行為が侵害となるのは、それが「義理の世界」の他で行われた場合に限るのである。人は「義理」を守り汚名をすすぐ限り、決して侵害の罪を犯したことにはならない。ただ借を反して勘定を清算するだけのことである。日本人は侮辱や誹謗や敗北が報復され、あるいは除去されない限り、「世の中がひっくりかえる」と言う。有徳の人は世の中を再び均衡状態に戻すように努力せねばならない。報復は人間の徳行であって、人間の本質的な弱さにもどつく避けがたい悪徳ではない。

루스 베네딕트의 분석을 수용한다면, 수치심에 남편을 죽였다는 무사 아내의 증언은 현대 윤리의 관점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일본 고유의 가치체계 속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죽은 무사 또한 아내 마사고와 동일한 이유로 자신이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자살을 하였다고 증언한다. 무당을 통한 사령(死靈)의 진술을 통하여 무사는 자신의 아내가 겁탈 당한 후 다조마루의 유혹에 솔깃해져 그를 따라나선 아내가 결국 남편인 자신을 죽여 달라고 소리쳤고, 그러한 아내의 배신과 굴욕에 결국 자결했다고 말한다. 다조마루가 지키고자 했던 명예가 '비겁하게 사람을 해치지 않는 명예로운 도적'이라는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 살인을 자처하고 있고 무사 아내 또한 '정절에 관한 여자의 명예'를 위해 살인을 자처하듯 무사의 사령 또한 '사무라이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위해 자살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덤불 속'처럼 얽혀있는 작품 『덤불 속』의 내용은 점차 실마리를 찾아간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이 남아있다. 그것은 '거짓'과 '명예'의 통일 구조이다. 작품 속 살인 용의자 모두가 비록 명예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출 수가 없다. 특히 살인죄의 처

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처벌보다 더 두려운 수치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명예'로운 선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에고이즘이자 자기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명예'를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또한 '명예욕'이라는 표현처럼 하나의 욕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예'를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근대 사회의 윤리는 '진실(truth)'을 말하였을 때 비로소 '명예'가 지켜진다. 거짓말을 통해 얻어진 '명예'는 인정될 수 없으며 그 자체가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덤불 속』의 살인용의자들은 거짓 진술을 통하여 수치를 피하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 이대로라면 『덤불 속』은 까뮈가 이야기하는 '부조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비록 서양과는 다른 일본 고유의 '명예' 개념을 상정한다 하더라도 '진실'을 외면한 '명예'는 인간의 불합리성과 추악한 에고이즘의 한 단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일각의 아쿠타가와 연구자들은 『덤불 속』을 『라쇼몽』과 마찬가지로 인간 신뢰와 추악한 에고이즘의 고발로 분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아쿠타가와는 이 '진실'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쿠타가와는 한 치의 빈틈도 없는 각기 다른 세 가지 진술을 놓고 독자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 혼란을 통하여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를 독자들이 추측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인 접근을 막고 있다. 그는 이 혼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작가로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단지 서술자로만 머무는 제3자적 방법의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호기심과 재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쿠타가와의 의도는 단순하게 독자에게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작품 속 살인용의자들의

거짓 증언과 명예를 지키려는 에고이즘적 태도에 대한 독자들의 비난으로부터 작품 속 등장인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한 듯하다. 이로 인하여 작품 속에서 거짓과 명예는 상호 호응한다. 서양적 사고와 달리 『덤불 속』에서는 거짓은 명예를 위한 전제이자 필요조건이며, 명예는 거짓을 통하여 확정된다. 거짓을 통해 획득된 명예는 분명 부조리이다. 하지만 이 거짓증언이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이 아닌, "내가 진정한 살인자이다"라는 통렬한 오만과 당당함을 위한 거짓이기 때문에 설사 그 당사자가 진정한 살인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거짓 증언만은 비난할 수 없게 만든다. 거짓과 명예가 상호 통일되는 것은 부조리이지만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이나 야수성, 물질성, 비생명성 등 부조리의 전형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불편함과 불쾌 또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2) '진실-사실'의 대립 구조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성격

만약 아쿠타가와가 이 작품 『덤불 속』의 주제를 '인간 본성의 추악함'과 '자기합리화와 에고이즘의 추함'을 폭로로 설정하였다면, 이것은 작품에 조금의 변화만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건 당사자들이 '서로 자신이 죽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된다. 또한 실제 현실 속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경우 모든 용의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이 경우 다조마루는 추악한 살인자에 강간범으로 전락하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였던 '명예'를 잃는 것은 물론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까지 불사하는 용서할 수 없는 에고이즘의 전형적인 인간이 된다. 마사고 또한 '자신이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여타 다른 정황과 다조마루의 증언 그리고 죽은 무사의 진술을 통하여 자신의 정조를 빼앗은 도적

에게 마음이 이끌린 불륜녀로 전락하게 된다. 죽은 무사 또한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원한에 사로잡힌 졸장부로 보여질 것이다. 하지만 아쿠타가와는 이와 같은 선택을 거부하고 당사자 모두가 '자신이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매우 이례적인 설정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독자로 하여금 사건 당사자 모두를 증오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작품 속 최고의 악당인 다조마루까지도 '죽음에 초연하고' '명예'와 '지조'를 지키려 하는 모습으로 '악인이지만 미워할 수 없게' 만들어 이면적인 호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가 이와 같이 작품 속 살인용의자들에게 '거짓의 위증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진실(truth)'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 일본, 근대와 전통에서 달리 이해되고 쓰인다는 차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니토베 이나조의『무사도』에서는 이 '진실'에 대한 서양과 일본의 개념 차이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 근래에 어느 미국인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만약 평범한 일본인에게 거짓말과 예의를 잃는 것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는 질문을 하면 틀림없이 거짓말을 하는 편이 낫다고 대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 이 말은 한편으로 맞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지 않다. 맞다고 할 수 있는 점은 평범한 일본인, 아니 사무라이조차도 그가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할 것이라는 점이다. 잘못된 점은 그가 '거짓말'이라는 일본어를 영어의 '허위(falsehood)'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그 말에 너무 무게를 실었다는 점이다.
>
> '거짓말'이라는 일본어는 진실(誠)이 아니라는 것. 또는 진짜가 아니라는 것 모두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18]

18) 新渡戸稲造, 앞의 책, p. 73.
近年、あるアメリカの著述家は次のような所説を発表した。それは、もし普通の日本人に嘘をつくことと、無作法であることのどちらがましであるか、ときいたら、彼は躊躇なく「嘘をつくこと」と答えるであろう、というものである。/ このように述べたペリー博士は、一部において正しく、他の一部において誤っている。正しい点というのは普通の日本人、いやサムライでさえも彼が述べたように答え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ある。正しくないという点は、彼が「嘘」という日本語の言葉を"falsehood"と翻訳して、その言葉に重みを置きすぎ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嘘」という日本語は真実(誠)でないこと、あるいは本当でないこと全部を示すために用いられている。

이것은『라쇼몽』에서 살펴본 선과 악의 경계의 구분을 넘나드는 일본의 인정(人情)과 같은 고유의 '진실' 개념은 '허위'와 '사실'의 구분을 넘어서는 의미라는 것을 보여준다. "진실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말은 가령 "동생이 화분을 깬 것을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자신이 깨뜨렸다고 '거짓말'을 하여 회초리를 맞는 형의 모습에서 동생을 사랑하는 형의 '진실'을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상호 대립되면서도 통일될 수 있다.

니토베 이나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무사도에서 성실이 용기 이상의 높은 동기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 종종 의문을 품는다. 일본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적극적인 훈계가 없는 가운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죄악으로 책망받지는 않았다. 오히려 약함으로 비판받고, 약함은 큰 불명예였다. 실제로 정직의 관념은 명예와 구별하기 어렵게 섞여있다. 라틴어와 독일어에서도 정직의 어원은 명예와 일치한다"[19]고 말하고 있다. "거짓증언을 하지 말라"는 서양의 금언은 기독교의 십계명과 마가복음에 신의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칸트 또한 그의『순수이성 비판』에서 '허

19) 같은 책, p. 79.
私はしばしば、武士道の誠が勇気以上の高い動機をもつかどうかを考えた。偽りの証言をすることに対するなんらかの積極的な戒めがない中で、嘘をつくことは罪悪としてとがめられたのではなかった。むしろ弱さとして批判された。そして、弱さは大いに不名誉であった。/ 際のところ、正直の観念は名誉と分かちがたく混合している。「正直」のラテン語とドイツ語の語源は「名誉」と一致する。

위의 거짓말'은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이것은 곧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서양 윤리에서는 '진실'은 반드시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며 어떠한 선의지(善意志)라도 '허위'와 양립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위에서 제시한 예시처럼 만약 형이 동생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면, 서양에서 부모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매우 좋은 것이나 거짓말은 결코 옳지 않다'고 분명히 나누어 훈계를 할 것이다.

하지만 니토베 이나조의 기술에 따르면 일본 고유의 '진실' 개념은 이와 달라서 그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목적과 의지가 '진실'하다면 이것은 '허위'가 아닌 진정한 '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니토베는 앞의 인용문처럼 '진실'을 '마코토'로 해석한다. 이것은 '진실'의 척도가 얼마나 '성실'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거짓'과 '사실'을 기초로 하는 서양 윤리의 '진실' 개념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 준다.

일본어로 마코토(まこと)라고 하는 성(誠)은 원래 경(敬)과 더불어 주자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실천윤리 중의 하나였다. 가령 고학(古學)이라 불리는 일본 유학의 대표자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마코토라 하여 이를 중시했다. 그는 경에 집착하는 것은 외면에 치중하는 것이고 실제 생활 속의 인간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윤리 즉 '활물(活物)'이며, 잔인 각박하게 리(理)만 따지는 것은 죽은 윤리 즉 '사물(死物)'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일본적 성으로서의 마코토는 리를 배제한 채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이나 타자를 속이지 않는 주관적 심성의 순수성 혹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무사(無私)의 상태를 이상시하는 실천윤리라 할 수 있다. 거기서는 보편적 원리로서의 '리' 개념과는 무관한 내적 필연성이 강조되며, 순수하게 자기를 잊고 전체성에 귀일하는 주관적 심정에 입각하여 기존 질서에 순응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몰입하는 태도가 선(善)으로 규정된다.

이와 같은 마코토의 윤리는 메이지유신의 주역인 막말지사(幕末志士)들에 의해 '지성(至誠)'으로 강조되어 보다 주관화되었다. 그 후 근대 일본 최대의 철학자라 일컬어지는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1870~1945) 또한 『선의 연구(善の研究)』에서 선의 첫 번째 덕목으로 '지성'을 꼽았다. 이리하여 근대 일본에서 마코토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지닌 덕목으로 절대시되기에 이른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인은 지극히 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코토의 윤리가 두 개의 상반된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코토의 윤리는 한편으로 대단히 조직적이고 질서 잡힌 인간관계를 창출해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예컨대 마코토의 문화에서는 자기와 타자가 각자 독립적인 개인으로 별개의 존재라는 의식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게다가 악의 문제가 시비를 가리는 리의 문제로서 인식되는 일은 거의 없다. 루스 베네딕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악의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는 자세가 희박하다. 뿐만 아니라 마코토의 문화에서는 종종 상위 질서 곧 천황·지도자·교조 등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당연시한다. 또한 리(理)와 같은 원리적인 거대담론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위 질서의 도덕적 결함을 견제할 메커니즘이 결여되기 쉽다. 따라서 종종 집단적인 악에 무자각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가령 마코토의 윤리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상황에 따라 마코토를 위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타인을 죽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마코토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20]

20) 박규태, 『일본정신의 풍경』, 한길사, 2009, pp. 80-84.

이것은 아쿠타가와 작품 속 등장인물의 거짓말이 일본 고유 가치체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지극한 마코토를 지키려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니토베의 주장처럼 '진실'의 어원이 동서양 공히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실은 그들의 증언이 '허위'에 찬 것이 아니라, 일본 고유의 마코토 개념에 따르면 모두 다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거짓과 진실이 통일되고 다시 진실이 사실과 괴리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불합리성이자 부조리이다. '진실'이 허위와 거짓의 반대 개념보다 주체의 성실과 참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일본 고유의 정서와 가치 속에서는 그들의 거짓말은 '허위'라는 측면보다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됨'의 행위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부조리는 해결된다.

요시다 세이치(吉田精一)는 『덤불 속』의 주제와 관련하여 "무엇이 가장 객관적으로 올바른가는 아마 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요컨대, 어떤 해석도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복잡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다"[21]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인생 또한 옳고 그름의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매우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아쿠타가와의 부조리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아쿠타가와의 작품들은 이런 관점의 연장에서 일본 고유의 가치체계를 근저에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1) 吉田精一, 「芥川龍之介と今昔物語—『藪の中』につい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25巻9号, 至文堂, 1960, p. 46.

4. 맺음말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의 『덤불 속』은 '인간의 허위와 부조리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추악한 것인가, 아니면 신뢰할 수 없지만 미워할 수도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저마다 자신의 명예와 처지를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진술자들의 증언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아쿠타가와는 독자들이 각각의 진술의 상충을 통하여 진술자 모두가 거짓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든다. 이 주관적 진술은 진술자 자신의 명예나 이익과 관련하여 진실을 부분적으로 감추고 있거나 왜곡하고 또는 자기 합리화의 변명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이 작품은 의사소통의 불가능성과 인간 존재에 대한 불신과 허위라는 측면에서 부조리의 단면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부정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인자이다'는 긍정의 자백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비록 그들이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이 거짓으로 인한 불신은 '악(惡)'과 '미움'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살인 사건은 인간 존재의 야수성을 담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짓말 속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야수성이나 물질성, 비생명성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서양의 '합리-불합리', '조리-부조리' '선-악'의 이항적 대립구조와 다른, 일본 고유의 사유 및 가치체계의 결과이다. 서구적 관점에서 본다면, 거짓과 진실이 통일되고 다시 진실이 사실과 괴리되는 것은 전형적인 불합리성이자 부조리이다. 하지만 니토베 이나조의 기술처럼 일본 고유의 '진실' 개념이 비록 사실과 대립되더라도 그 목적과 의지가 '진실'되고 진정한 '참'이 될 수 있다면 작품 속에 나타나는 거짓 증언은 주체의 성실과 참됨이라는 의미로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정당한 행위로 수용될 수 있다.

작품 『덤불 속』에서는 거짓은 명예를 위한 전제이자 필요조건이며, 명예는 거짓을 통하여 확정된다. 거짓을 통해 획득된 명예는 분명 부조리이다. 하지만 이 거짓증언이 "자신이 살인자가 아니다"라는 비겁한 변명이 아닌, "내가 진정한 살인자이다"라는 통렬한 오만과 당당함을 위한 거짓이기 때문에 설사 그 당사자가 진정한 살인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결코 그 거짓 증언만은 비난할 수 없게 만든다. 거짓과 명예가 상호 통일되는 것은 부조리이지만 인간 존재의 무의미함이나 야수성, 물질성, 비생명성 등 부조리의 전형성은 발견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불편함과 불쾌 또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서양의 '조리-부조리'의 개념과는 다른 일본 고유의 가치체계가 『덤불 속』의 갈등구조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 속 등장인물의 거짓말은 일본 고유 가치체계에서 큰 의미가 없다. 단지 그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지극한 마코토를 지키려 하였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니토베 이나조의 주장처럼 '진실'의 어원이 동서양 공히 '명예'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허위'가 거짓과 부조리가 아니라, '명예'를 위한 '진실'된 행위라는 측면으로 일본 전통 가치체계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거짓과 진실이 통일되고 다시 진실이 사실과 괴리된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불합리성이자 부조리이다. 하지만 '진실'이 허위와 거짓의 반대 개념보다 주체의 '성실'과 '참됨'이라는 의미가 더 강한 일본 고유의 정서와 가치 속에서는 그들의 거짓말은 '허위'라는 측면보다 자신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참됨'의 행위로 수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부조리는 조리와 선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芥川龍之介, 「藪の中」『芥川龍之介全集』, 第5巻, 岩波書店, 1977.

2. 논문

김세리, 「미적 경험으로서의 '부조리', 『미학・예술학 연구』Vol.22, 한국미학예술학회, 2005, pp. 307-339.

海老井英次, 「『藪の中』の原典と作家の主体」—『藪の中』論(一)」,『北九州大学文学部紀要』第10号, 北九州大学文学部, 1974, pp. 25-39.

_____, 『藪の中』主題考—『藪の中』論(三)『北九州大学文学部紀要』第16号, 北九州大学文学部, 1976, pp. 42-52.

玄侑宗久, 「恥なき藪の中へ」, 文藝春秋, 『文學界』, 63-7, 2009, pp. 178- 181.

駒尺喜美, 「芥川龍之介『藪の中』」,『国文学 解釈と鑑賞』34巻4号, 至文堂, 1969, pp.79-83.

吉田精一, 「芥川龍之介と今昔物語—『藪の中』について」,『国文学 解釈と鑑賞』25巻9号, 至文堂, 1960, pp. 42-53.

3. 단행본

中村光夫, 「『藪の中』から」,『芥川龍之介Ⅱ』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日本文学研究資料刊行会, 有精堂, 1977.

新渡戸稲造 著, 奈良本辰也 訳・解説 『武士道 : 現代語で読む最高の名著』 三笠書房 (初出 *Bushido: The Soul of Japan*, 1900)

日本古典文学大系, 『今昔物語集』 五巻, 岩波書店, 1963.

ルス・ベネディクト, 長谷川松治 訳 『菊と刀—日本文化の型』, 社会思想社, 1967.

和田繁二郎, 『芥川龍之介』, 創元社, 1956.

芥川龍之介の『藪の中』は不条理文学なのか

姜惠宣

芥川龍之介の作品の『藪の中』に登場する人物は、それぞれ自身の名誉と境遇を合理化するために偽りの陳述をしていて、当然、事件の重要な部分にあっての情況は全部一致してない。このため、この作品は意思疏通の不可能性と人間の存在に対する不信と虚偽という面で不条理の断面を告発するように考えられる。しかし、これらの嘘は「悪」と「憎しみ」に繋がらない。不条理作品の殺人事件には人間存在の野獣性を持っているが、『藪の中』の偽証には人間の根本的な野獣性や物質性、非生命性などは現れていない。

これは西洋での「条理-不条理」の概念とは違った、日本伝統の価値体系が『藪の中』の葛藤構造に内在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作品中の登場人物の嘘は日本固有の価値体系では大きい意味がない。単に彼らが自身の状況でどれほど熱心に「誠」を守ろうとしたのかが重要である。特に「真実」の語源が東洋と西洋共に「名誉」と関連していることは、日本固有の価値体系から彼らの「虚偽」が偽りと不条理でなく、「名誉」のための「真実」の行為であるという面で理解されていることを示している。

さらに、これは偽りと真実が統一されて、再び真実が事実と乖離するという面で典型的な不合理性であり、不条理であると言える。だが、「真実」という言葉が虚偽と偽りの反対的概念であるより、主体の「誠実」と「真・誠」であるという意味のほうがもっと強い日本固有の情緒と価値の中では彼らの嘘は「虚偽 という側面より自分の名誉を大切にする「真・誠」の行為に受容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この中で不条理は条理と善の世界に進む通路になるのである。

キーワード: 不条理、誠、真実、『藪の中』、芥川龍之介、カミュ

강혜선
소속: 충남대학교 강사
주소: 대전시 유성구 지족로 148번길 10 노은4단지 406-206
전화번호: 010-2860-4842
전자우편: myorange21@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3월 17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